

“지난 50년 통해 미래 50년 준비”

조계종 통합종단 5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집행위원장 영담 스님

4월 11일 조계종이 통합종단출범 50주년을 맞았다.

“통합종단출범5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영담 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은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인 올해는 새로운 50년,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다짐하는 해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위원장인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대신해 통합종단출범 50주년 기념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영담 스님은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두고 명칭부터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안다. 명칭을 통일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취지로 보자”고 말했다.

스님은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이 자칫하면 1700년 한국불교의 정맥을 잇고 있는 조계종의 정체성을 50년의 단기 역사로 국해시킬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 50주년에 집중하면 정화로 표현되는 비구·대처 다름을 조목조목 대 일용화합의 분위기를 해칠까하는 염려도 했다.

“종단의 지난 50년 반세기는 반목·대립의 기간이었습니다. 새 50년에는 한국불교가 사회의 기둥으로 자리매김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단계입니다.”

조계종은 통합종단 출범5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대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 그 시작이 4월 4~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단 50년 기록과 대화하라’를 주제로 열린 기록물 전시전이다. 전시회를 위해 조계종 중앙기록관(관장 영담)은 지난해부터 육필원고 편지 일기 안거증 포상증 사진 녹음테이프 등 불교역사자료 모으기 운동을 펼쳐왔다.

4월 세미나·10월 결집대회 통해 1700년 정맥잇는 역할 모색

11일 총선일로 인해 하루 앞당겨 10일 치러진 기념법회에서는 원로의원 월탄 스님 법어를 통해 출가자 본분을 돌아보고 위범망구의 자세를 되새기자는 결의도 다졌다.

25일 오후 2시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50년의 성장과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28일 오후 1시에는 동국대 종합연구소 주최로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한국불교와 조계종’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다.

10월 중 개최 예정인 결집대회는 종단



역량을 하나로 모아 미래를 대비하자는 다짐의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담 스님은 “결집대회를 통해 종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자종단에 걸맞은 역할을 모색하고 다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10~11월경에는 한국불교1번지 조계사 경내에 조계종 법통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육조해능 대사의 좌상이 불안된다. 이 좌상은 육조해능 대사의 사발본사인 중국 광효사가 한중불교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조계사에 기증한 것이다.

영담 스님은 “최근 조계사를 찾는 외국

인 가운데 70%가 중국인이다. 육조해능 대사 좌상을 봉안은 문화자원으로서 민간교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스님은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서는 수행문화의 세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질적으로 갖출 만큼 갖춘 서구인들에게 불교의 장점인 정신문화가 매력적이며, 한국불교는 불교수행 전통을 잘 살려왔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영담 스님은 “서양인들은 자연을 개발 대상으로만 여겨왔다. 환경 등이 주목받는 요즘 불교의 가치관을 그들에게 소개해 자연이 정복의 대상이 아닌 보존과 상생의 동반자임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담 스님은 “종단의 과거 50년은 정화 후유증으로 암울했던 시기였다. 조계종에 희망이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줄로 알고 있다. 하지만 조계종에는 희망이 있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조계종은 정화·개혁 등으로 인한 다툼 속에서도 유구한 전통을 지켜온 지력이 있다. 종도를 비롯한 불자들 모두 한국불교의 희망과 지력을 믿고 새로운 50년을 기대하고 준비해 주기 바란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불교가 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호국연무사 건립 위한 정성 답지

오등선원·익명 독지가 등 아름다운동행에 기부

호국연무사 건립을 위한 불자들의 정성이 이어지고 있다.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조실 대원)과 미국에 거주하는 익명의 노보살은 4월 9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군포교 건립기금으로 각각 1000만원과 5000달러를 전달했다.

이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을 대신해 학림사 주지 서봉 스님이 참석했다.

美 노보살의 기금은 범보신문에 전달된 6000달러 가운데 일부이다. 노보살은 6000달러 가운데 5000달러는 호국연무사 건립기금으로, 1000달러는 로터스월드가 주관하는 캄보디아 돕기에 지정 기탁했다.

10월에는 성철스님문도회에서 2000만 원을, 경허선사열반100주년기념사업회에서 1000만원은 논산 군법당 기금으로 써달라며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조동섭 기자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10월 논산군법당 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조계종 출가제도 개선 공청회

6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출가자 현황과 출가제도 문제점을 살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6월 1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 ‘출가제도 개선 소위원회’는 4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차회의를 열고 이날이 결정했다.

행사에서는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이 기조발제 ‘현행 출가자의 현황과 출가 제도의 문제점’을 통해 현대사회와 출가 승려의 길과 출가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종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성문 스님(대구 동화사)은 주제발표 ‘현행 출가제도의 개선방안 및 출가자 활성화 방안’에서 교구출가·은사도제 정원제 등 도입과 출가체형 프로그램 신설 등을 제안한다.

정범 스님(중앙총회회의원)은 ‘선교육 후독도 출가 제도’에서 동국대 불교대학을 예비출가자 교육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한다. 가섭 스님(교육원 교육국장)은 ‘단기출가(환계제도)를 활용한 출가 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단기 출가제 도입을 통한 청년 출가 기회 확대를 제안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BBS “김혜옥의 아름다운 초대” 공개 방송

4월 23일, 3층 대법당서

BBS불교방송(사장 이재원)은 4월 23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김혜옥의 아름다운 초대) 특집 ‘행복한 봄나들이’ 공개방송을 개최한다.

이번 공개방송은 새 봄을 맞아 중년의 건강과 행복을 주제로 사찰음식 대가 선

재 스님, <생긴 대로 병이 온다> 저자 조성태 한의학 박사가 게스트로 초대돼 건강관리법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초대공연으로는 ‘잊혀진 계절’의 이용, ‘포플러나무아래’의 이예린, ‘나갈 언덕 없는건가요’의 추가열, ‘너에게 난 나에게 난’의 김형성이 감미로운 선율을 들려준다. (02)705-5250 노덕현 기자

태허 스님 제43주기 추모제

4월 12일 서울 현충원서 봉행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는 4월 12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민족독립운동가 운암 김성숙(태허 스님)의 제43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 <사진 아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총무부장 영담 스님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태허 스님은 부처님 정법에 의지해 ‘자유롭고 행복한 새 나라 건설을 위해 분투하자’는 신념을 바탕으로 조국의 광복과 자주독립, 한국적 민주

주의 정착,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위해 용맹 정진한 불교선각자이다”고 말했다.

봉선사 주지 정수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스님으로서, 독립운동가로서, 광복 이후에는 반독재운동을 벌인 태허 스님의 생애가 오늘 추모제를 발판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열린선원 법현 스님 등 불교계 인사와 운두섭 서울 남부보훈지청장, 함세웅 회장(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김원웅 회장(향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남양주 광동고 학생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운암 김성숙 선생은 1919년 3·1운동 당시 봉선사 승려 신분으로 만세운동을 주도해 서대문형무소에서 2년간 옥고를 치렀다.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조선의용대 유학한국혁명청년회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민족전선연맹 등에서 활동하며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내는 등 항일 투쟁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헌신한 독립운동가이다. 조동섭 기자



금강대, 교육강화사업 5년 연속 선정

총 143개교 경합...5억 7천만원 지원

학생 1인당 145만원 혜택

금강대(총장 정병조)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으로 5년 연속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143개 대학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평가지표에 따라 9개 유형별로 나눠 순위를 정하고 최종 97개교를 선정했다. 선정대학은 국공립대 24개, 교원양성대 11개, 수도권 사립대 28개, 지방 사립대 34개 등이다.

이에 따라 금강대는 5억7400만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1인당 145만원 정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

9개 유형별로는 △국공립(재학생)1만명 이상 9개교 △국공립 1만명 미만 15개교 △교원양성대학 11개교 △사립 수도권 1만명 이상 16개교 △사립 수도권 5000~1만명 미만 8개교 △사립

수도권 5000명 미만 4개교 △사립 지방 1만명 이상 12개교 △사립 지방 5000명 미만 9개교가 선정됐다. 금강대는 5000명 미만 9개교에 해당한다.

평가는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20%) △전임교원 확보율(10%)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20%) △장학금 지급률(10%) △학생교육투자비율(10%)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10%) 등 각 대학의 교육역량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로 구성된 ‘교육지표 포괄적 반영비율’에 따라 이뤄졌다.

금강대 관계자는 “총 금액은 작지만 학생 1인당 지원 혜택은 가장 높은 수준일 것”이라며 “교육여건 개선, 교육 및 실생활 지원, 취업역량과 전문성 강화, 장학사업 등 교육역량을 높이는 데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대모집

집중 5일 완성
저자: 법화종현(정흥교) 큰스님 직강

·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연화사 불교대학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공법 창시자

저자전화
010-7415-0803

세계제일 적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공법

서울 경기 전국 학인 대모집

대전광역시 소재 연화사

강의 일정표

- ◆ 제1일 - 구단 구공의 제법칙
- ◆ 제2일 - 구단구공비결 문구해석
- ◆ 제3일 - 부교재 중심 (일련의사태 해설)
- ◆ 제4일 - 구단구공용신의 제법칙
- ◆ 제5일 - 구단구공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공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공으로 짚어 귀신뽑아 소장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최고수로 가는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 신문, 인터넷, TV, 유·무선 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를 하면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표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